

대선후보들 “4·19정신 계승” 한목소리

문재인 “정의로운 통합으로”
안철수 “국민이 이기는 한국”
홍준표 “이땅에 민주주의를”
유승민 “민주공화국 건설”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선 후보들은 19일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 방명록에 “촛불로 되살아난 4·19 정신, 정의로운 통합으로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김주열 열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4·19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민주혁명이지만, 그 때 우리는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미완의 혁명이 이후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 항쟁을 거쳐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참배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촛불정신을 받들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가 6월 항쟁 이후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4·19 혁명을 계승해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썼다. 방명록 작성 직후에는 “4·19혁명 세계 4대 민주화혁명 인정 천만인 서명”에 동참했다. 안 후보는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추모의 뜻을 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이날 오전 오전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4·19 혁명은 이땅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4·19혁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이땅에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4·19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썼다. 그는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리더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4·19 메시지를 내어 “주권자의 위대한 힘을 믿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

민주당 ‘전북·군산비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군산시 선거대책위원회가 19일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전북·군산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너른꿈꿨 공약발굴’ 전북 책임자로 참여한 박재만 도의원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라며 “새만금의 추진동력을 청와대가 담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정상 가동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필요하다”면서 “군산은 자율주행기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메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국내 상용차 시장(2.5t 이상) 점유율을 군산 타타태우상용차와 원주 현대상용차가 94%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만금이 자동차 산업의 최첨 부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밝힌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신설(책임감 있는 추진력, 2020년까지 공공주도 용지매입, 수송체계 기본인프라 구축, 신항만·국제공항 등 건설 등)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한국해양수산개발공사 신설 지원 확대, 공공선박 발주 확대, 노후선박 교체지원,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유도, 선박펀드 지원 등)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단지 조성(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단지를 관련 새만금에 조성) ▲군정항 항로확장 및 개설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김철규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호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군산이 되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군산시 선대위는 수송중 종로상회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군산=장현 기자

‘상도동계’ 김덕룡, “나 같은 민주·합리적 보수는 문재인 지지”

“文, 통합정부 책임자...개헌 필수”
동교동계 원로들도 文 지지선언

‘상도동계’ 좌장격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양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 민주적인 보수는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문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저는 사실 보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후보에 대해 “앞으로 국민통합을 하려면, 연합정치가 필요한데 그대도 (문 후보가) 제일 큰 정당을 이끌고 있고 경륜이 있다”며 “누구보다도 통합정부를 만드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을 떠나 있던 사람이지만, 정치권에 대한 책임은 있는 사람이어서 특정 정파에 관여하지 않고 개헌운동을 해왔다”며 “이제 개헌의 키는 다음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고, 후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위중하고 경제 뿐만아니라 외교안보도 위중한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문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정권교체는 이미 목표가 아니라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정치를 바꿔 시대교체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개헌은 필수적 과제”라며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통합정부의 내각은 각계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리아 엘스티팀’이 되



손 꼭 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를 바란다”고 문 후보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혁신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여야, 보수·진보,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국민회의’를 구성해 국민대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선택을 응원하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김 이사장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표한 뒤, “4·19 혁명 주역 중 한 분이 며, 민주화가 진전되는 고비마다 큰 역할 해주신 분”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

룬 큰 공로자이자 대선배”라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3당 합당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진영이 다시 하나로 통합됐다”며 “국민대통합 시대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대통합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개헌을 통해 그것이 더더욱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며 “선배님의 손을 잡고, 정권교체, 대통령부 수립, 그리고 개헌 실현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부친인 장재식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을 비롯한 배기선, 배기운, 김태전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 1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고, 민주 호남정신을 구현해 나갈 책임지는 문 후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뉴스

권익현 전 도의원, 문재인 후보 특별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촌소득향상정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부인출신 권익현(사진 왼쪽) 전 전북도위원을 임명했다.

17일 임명장 수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안민석 지능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다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권익현 농어촌소득향상정책발전특별위원회장은 전북도의회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전라북도 도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대선에서 농어촌소득향상정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권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방을 살리고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위원장 역할을 강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제8대, 2010년 제 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한 교육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라지리'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구초 교사)